## 월요광장

#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연구실장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낮은 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특히 높은 고용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를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청저장고(靑低長高)' 추세가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30대 이하 청년층(15~39세)의 고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나이가 많은 4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3년 30대 이하 고용률과 40대 이상 고용률 격차는 4.3%p였다. 그런데 작년(2012년)에 청년층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장년층의 고용률은 높아져 그 격차가 2배 가까이(7.4%p) 커졌다. 40대 이상에는 70대는 물론 80대 이상 고령층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뭔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전체 취업자에서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61.1%)이 늘어나고 취업자의 평균 연령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40대 이상의 고용률은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과제는 30대 이하 청년층을 어떻게 일자리로 이끌 것인가로 귀착된다. 모바일의 활용이 증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해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젊은 인재가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한 창조경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에 정착하는 경향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일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자료를 보면 여가나 자유시간보다 업무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나, 사적인 약속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또한 노동을 사회적인 의무로 여기는 청년층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소득이 있으면 일하지 않고 취미활동을 하겠다는 청년층의 응답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해도 대학 졸업 입직자의 대다수(75.4%)가 입사 후 2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현재 일하는 방식이나 일방적으로 신입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태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장시간 근로방식,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의 미분리, 불필요하게 수직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상관없이 낮은 초임 급여, 기업주의 전횡이나 불공정한 일처리 등이 청년층의 일자리 정착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가 고용률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직업관과 직업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언론도 소명(calling)으로써 직업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고 일을 통한 헌신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과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낮추었던 지난 정부의 아이디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주는 자기가 만든 일자리의 매력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력이 없는 일자리를 가진 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청고장저(靑高長低)'가 이루어지면 고용률 수치는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옴부즈맨 칼럼

# 문화수도 '예향'을 받쳐주는 광주일보의 저력을 바란다

**이묘숙**
갤러리 아크 관장

신록이 가득한 계절 6월이다. 청록의 짙푸름이 산하 그득하듯이 우리 지역의 문화계도 녹음이 무성하듯 풍성한 소식들이 여기저기 가득하다.

오랜 시간 숨고르기를 해왔던 지역 문화예술의 풍성한 알림이 '예향'의 복간이 화제의 중심에서 어느새 화제의 이곳저곳의 전령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옛 친구를 만나듯이 반갑고 친근한 예술계 소식지가 이제는 그 모습이 싱싱하고 감각적인 면모까지 겸비하였으니 흐뭇하기가 더하다. '예향'의 문화 내용들이 견고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은 그동안 광주일보가 문화 예술의 이곳저곳을 발굴취재하고, 심층 보도해온 뚝심과 넓은 시야가 한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수식어로 함께하던 예향이라는 이름이 사실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조금은 부끄럽고 차마 스스로가 꺼내기도 주저될 만큼 그리 문화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 진다. 공연장의 낮은 좌석 점유율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예술의 거리 풍경에 이르기까지 어찌 우리가 자칭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 부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었다. 시민들의 무관심뿐만 아니다. 올해 초 잠시 소란이 있던 지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연임문제로 잡음부터 그 외에 시립예술단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 돌출도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다행히도 요사이 서서히 봄날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잎새의 설렘처럼 지역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들이 열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사그라지던 불씨를 살리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살리지 않으면 이내 불티만 날리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주요한 행동양식이며 상징체계를 말한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감정이입을 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그 특색들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문화가 결코 예술인들만의 전용물은 아니다. 예술로 인하여 문화의 꽃이 더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진정한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물론 단체나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관공서나 기관의 소통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모두가 다 함께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사회의 문화라는 정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향에서 문화도시로 자리를 굳건히 하기에는 소통의 부재들이 너무도 많다.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진행에 있어서 복잡하고 명료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콘텐츠 부분의 미흡에 따른 부분 개관의 잡음과 그리고 감독 선임에 있어서 지역단체의 반발까지 모두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여간 마뜩지 않은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가장 기본은 그 문화를 함께 나눌 모두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서야 서로가 인정하는 그 사회의 문화로 자리하고 그 문화들이 꽃피는 도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다.

얼마 후면 '아트광주'와 '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의 문화도시면모를 내세우며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과정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역시 우리와 동떨어진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스레 일반인들은 이 또한 나와는 먼 수수방관의 딴 나라이야기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와 언론은 다시 행사가 닥칠 즈음에 불쑥 나타날지 모르는 문제점에 지면과 가십으로 설왕설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엎질러진 물처럼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콕 짚는 것보다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사전 점검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예방과 점검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예외없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주 부산에서 아트페어 '부산아트쑈'가 열렸다. 이제 2회를 맞이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미처 다 해소시키지 못하고 우선 진행해야하는 상황을 정리하며 완료하였다. 남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온 우리도 여전히 확실한 진행 상황들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현재의 가장 크게 해결할 우선순위에 대한 조언도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살펴 피할 점은 피하고 강화할 점은 더 보강하는 자세를 마련케 하는 것도 '예향'을 받쳐주는 광주일보의 강한 힘을 펼칠 부분이기도 하다. 문화라는 경기장에서 위험 순간을 맞이한 게임의 구원투수의 역할보다는 선발 투수로서 강한 투구력과 내 외야의 단단한 수비력을 갖추게 하는 멋진 감독의 역할을 바래본다. 예향의 뒷심과 단단한 문화적인 힘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다.

## 법조칼럼

# 분쟁 예방법, 껄끄럽더라도 문서화 하는 습관을

**이광재**
광주지법 민사1부 재판연구원

필자는 지난 1992년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한 이후, 2009년 초까지 삼성과 CJ 등에서 해외사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러다가 어렸을 적부터 마음 한편에 품었던 법조인이 되기 위해 길을 바꾼 후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4월 재판연구원으로 법원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는 광주지방법원에 재직중이다.

필자가 국내외 직장생활을 통해 체득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필자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재판연구원으로서 민·형사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중 다음 두 가지 경험을 소개하려고 한다.(오래된 일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서로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회사에 입사해 대리가 된 1999년경, 필자는 러시아라는 큰 시장을 담당하게 됐다. 당시 러시아 파트너 회사의 사장인 안드레이(가명)는 모스코바의 일부 지역의 지하세계를 주름잡다가 인생의 향로를 바꾼 젊은 친구였다. 회사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고, 그 회사는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서 매년 100% 이상의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인물을 상대해야 하는 필자는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요구조건들 중 일부는 회사 규정상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필자는 유럽 출장 중에 러시아에 들러 안드레이 사장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는 삼성에 제공한 담보를 초과하는 물량의 선적을 요구해왔다.

필자는 고민 끝에 다음날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안드레이 사장은 필자와의 상담을 마친 후 직장상사에게 필자의 융통성 부족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결국 필자는 귀국 후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원칙을 지킨 행위는 결국 안드레이 사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담보 금액을 자발적으로 증액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삼성은 신용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됐음은 물론, 안드레이 사장도 담보 범위 내에서 물량을 구입, 과도한 악성재고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 다른 경험은, 지난 2000년대 중반 필자가 북부 아프리카인 리비아에서 건설 및 플랜트 사업을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리비아에서는 국영기업체 담당자들도 메일이나 문서보다는 향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필자는 거래처인 리비아 전력청의 압둘 람제스(가명)라는 감독관과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친구는 대부분의 업무를 말로 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높여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먼저 작업을 진행하라며 필자를 재촉했고, 필자는 그래도 일종의 합의서라도 있어야 한다며 몇 차례 주장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거래해온 사정이 있고,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중단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우선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몇 주 뒤, 필자는 집에서 그와 식사 모임을 갖게 됐을 때 간략한 공사내용 변경내역서를 건넸고, 그는 얼굴을 다소 찌푸렸지만 그 서류에 서명을 해 줬다.

시간이 지나서 필자는 거래처에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 거래처의 자금부서 담당자는 기존 계약서를 이유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필자는 공사내용 변경내역서를 보여주며 설득하였으나, 담당자는 그 내역서가 공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며 막무가내였다.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독관 람제스를 만나려 뛰어다녔으나, 그도 책임을 부담하기 싫은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자는 거래처 책임자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변경내역서를 보여줬다.

거래처 책임자는 처음에는 자금부서 담당자와 같은 이유를 대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거래처 감독관이 서명한 서류가 존재하므로 결국에는 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는 계약서를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하되 이번만큼은 처리해주겠다고 해 간신히 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융통성없이 항상 원칙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한 상황을 잘 살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경우라면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에는 가급적 은행을 이용하고, 설령 현금으로 주고받더라도 영수증을 만들어 놓는 일,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놓는 일 등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껄끄러움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가급적 문서화해 놓는 습관을 들인다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說

#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수십명 바뀌다니

광주시교육청이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 처리를 잘못해 수십 명의 입상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초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부실로 시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치른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시험관리에 구멍이 뚫려 교육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광주 화정중학교에서 중학생 238명, 고등학생 191명 등 429명이 학교 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25회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들도 미래 과학도의 꿈을 키우는 등용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난 7일 입상자(금·은·동)를 해당 학교에 통보한 후 일부 중학교와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확인 결과, 수험생 107명의 점수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상자로 발표된 32명이 취소됐고, 22명은 등위가 변경됐다. 새로 상을 받는 학생은 33명에 달한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입상이 취소된 32명에게 5000원권 상품권을 보내 무마하려 했다니 교육기관으로서 할 짓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치밀해야 할 과학경시대회 성적 처리가 이 정도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교사 임용시험 과정에 감독 실수로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시험관리 부실사태가 터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점 과정에 전산오류가 발생해 입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입상을 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의 심적 허탈감은 어떻고, 교육행정의 불신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계자 문책 등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교육청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 도서벽지 응급헬기 야간에도 운행해야

전남지역 섬이나 오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헬리콥터를 밤에는 움직일 수 없어 운용 취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야간 헬기 운용이 불가능하면 평상시 오지 주민의 인명구조나, 휴가철 방문객들의 뜻하지 않은 사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낙도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목포에서 운용 중인 '닥터헬기'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함께 탑승해 신속한 조치로 낙도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헬기를 운용하다 보니 현행 항공법을 적용받아 밤이나 기상이 나쁘면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운항 반경도 목포에서 100㎞로 지정돼, 여수 쪽 섬으로는 접근조차 어렵다.

전남소방헬기(2대)도 사용한 지 10년이 돼 신속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착장이나 운동장 등 섬 내에 헬기가 착륙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발만 굴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나마 1대가 배치돼 있는 목포해경의 응급의료헬기는 24시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포해경에는 응급의료진이 단 한 명만 소속돼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마다 대동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응급구조 헬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남 도서벽지 주민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급헬기가 낡고 상황 발생시 위험 요인 때문에 제때에 활용할 수 없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휴가철에는 전남의 아름다운 섬 풍광을 즐기려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등은 응급헬기 관련 예산을 보강해 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타지 방문객들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116년 54일. 최근 사망한 세계 최고령 남성 기무라 지로에몬옹이 살다 간 시간이다. 1897년 생으로 전 세계 유일한 19세기 남성 출생자였던 그는 일본에서 4명의 왕과 61명의 총리가 재임하는 세월을 지나왔고, 손자(고손자 포함)만 54명에 이른다.

기무라옹은 40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90세까지 농사를 지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장수의 비결은 '음식을 조금 먹고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었다.

### 기대수명

지난달 19일 116세 생일을 맞아 세계 최장수 기록(115세 252일)을 깼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인 여성 오카와 미사오(115)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가 됐다. 남성 최고령자는 1901년 태어난 미국인 제임스 맥코브리(111), 기네스 역사상 최고령자는 122세까지 살다간 프랑스인 여성 잔 칼멩이었다.

최근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관련한 통계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1세(남자77세, 여자 84세)라고 발표했다. 1990년 조사 당시 기대수명 72세와 비교할 때 9살이나 늘어난 수치다. 194개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0세.(남자 68세, 여자 72세) 최장수국은 일본과 스위스, 산마리노로 평균 83세다. 한국은 17위를 차지했다.

유엔경제사회국(DESA)은 또 13일 '2012년 세계인구 전망'을 통해 2095~2100년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5.5세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45~2050년의 기대수명은 88.4세였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꼭 반갑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저출산 등 눈 앞에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 2200-515 |
| 〈대표 FAX | 222-4918〉 | 문화사업국 | 2200-541 |
| 편집부 | 2200-649 | 〈FAX | 222-8005〉 |
| 정치부 | 2200-612 | 〈FAX | 222-0195〉 |
| 〈대표 FAX | 222-4918〉 | 광고마케팅국 | 227-9600 |
| 사회부 | 2200-616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대표 FAX | 222-4267〉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63 | 〈FAX | 227-9500〉 |
| 문화생활부 | 2200-661 | 디자인실 | 2200-536 |
| 여론매체부 | 2200-621 | 서울지사 | 02-773-9331 |
| 체육부 | 2200-697 | 프로젝트팀 | 2200-555 |
| 사진부 | 2200-693 | 〈FAX | 02-773-9335〉 |
| 조사부 | 2200-571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